



“SHALL WE DANCE?”(우리 춤출까요?)

댄스파티에서 신사가 숙녀에게 먼저 손 내밀며 춤추기를 청할 때 통상 쓸 만한 영어 문장이다. 일본이 만들어 히트하고 미국에서 리메이크까지 한 명작 영화 제목으로 유명하다. 올 브린너와 데버러 커가 열연한 영화 ‘왕과 나’의 주제가 타이틀도 된다. 역시 영화와 노래 제목인 “DANCE WITH ME”라는 명령형 어문보다 매너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각각 세 단어의 단문이지만 뉘앙스는 사뭇 다르다.

춤 추면서 껌을 씹어도 되는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종종 있다. 그러나 댄스교실뿐만 아니라 댄스스포츠 파티 현장에서 아직도 아무 생각 없이 껌을 씹어대 눈에 거스르는 사례가 종종 있다.

당연히 삼갈 일이다. 엄격한 잣대로 짤 경우 담배를 입에 물고 춤추는 무례와 비슷한 결례로 보기도 한다. 음식을 먹고 나서, 또는 구내 질화로 인해 입 냄새가 걱정될 경우 껌을 계속 씹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기술보다 매너 우선
댄스 예절은 ‘사람 됨됨이’ 가늠자**

댄스스포츠는 남녀가 함께 어울려 추는 커플댄스다. 다소의 스킨십이 불가피하다. 예절과 복장 등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유로운 가운데 절제와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 채삼석 · 사진 한국프로댄스평의회 제공

상대 파트너에게 입 냄새를 풍기지 않으려는 나름의 배려라고 변명도 한다. 과연 그럴까. 대개 5분 이상 껌을 씹으면 껌에 밴 악취가 포화상태로 된다는 과학적인 실험결과도 알려져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를 계속 흡수하기는커녕 껌에 밴 악취가 다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도.

그래도 원한다면 입 냄새를 다소 경감할 정도로 5분가량만 껌을 씹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춤추기 직전에 뱀어 깔끔하게 종이에 싸 처리할 일이다. 양치질이나 가글링 대신 아닌가. 통상적인 대화나 돌만의 교체, 또는 진지한 회의 중에는 어떨까? 계속 껌을 입속에 넣고 오물거리거나 “ 짹짹 ” 소리 내며 씹는 상황은 아름답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권장할 사항이 아니다.

“매너가 그 사람 됨됨이의 가늠자다”(Manner makes the man)라는 말이 있다. 댄스스포츠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댄스에서 기술적으로 완벽에 가깝고 예술적으로 아름답다고 해도 매너가 마이너스라면 ‘빵점’, 실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교양을 제대로 갖춘 춤선생이 댄스 예체능 교육에 앞서 남녀 파트너 간 매너를 강조하고 수시 점검하는 이유다.

신사도의 나라인 영국 상류사회에서 '3상'을 갖춰야 신사의 품격이 완성된다는 말이 있다. 걸투 방식의 하나인 펜싱, 사냥이나 경마와 통하는 호스레이싱, 마지막으로 댄스이다. 당연히 매너를 중시하는 신사의 스포츠 가운데 댄스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얘기다.

댄스 신청 거절당해도 우아하게 물러서는 게 매너

구체적으로 남성 댄서의 매너 문제를 살펴보자.

먼저 이 댄스 칼럼의 대문(간판)격인 "셸 위 댄스"라는 말을 애용할 필요가 있다. 여성에게 정중하게 구두로 춤추기를 청하는 태도가 예의에 맞다. 아무 말 없이 몸짓, 손짓만으로 하는 댄스 신청(propose)은 상대에 대한 살례로 봐야 한다.

댄스 신청을 거절당해도 우아하게 물러섬이 남성의 매너다. 피곤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여성을 무리하게 플로어로 끌어내면 매너 위반이다. 음악이 끝나면 함께 춤을 춘 여성을 원래의 자리로 에스코트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교환하는 장면이 아름답다. 춤추다 다른 커플과 부딪히면 상대가 잘못했을 때에도 우선 사과를 하는 것이 에티켓이다.

어려운 댄스 피겨 스텝은 알아도 함부로 구사하지 말고 기본 스텝 위주로 춤추는 매너가 좋다. 파티 등에서 파트너가 그 어려운 스텝을 알고 있다고 단정하면 위험하다. 또 파티 플로어에서 상대방에게 댄스 스텝을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

는데 좋은 매너가 물론 아니다.

또 구두 색이나 바지 색에 양말을 맞춰 신는 것이 댄스 패션의 기본이다.

매너 없는 춤 신청은 여성이 확실하게 거절해야 한다. 그러나 예의 바른 신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응해야 좋은 매너다. 특히 같은 테이블에 동석한 남성의 신청은 기본 좋게 받아야 한다.

동호인끼리의 파티 모임이라면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남성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춤을 추다가 발을 밟힌 여성도 같이 사과해야 좋은 매너다.

댄스파티에서는 파트너 바뀌가며 춤추는 게 예의

커플로 파티장에 들어오면 동반자의 허락 아래 다른 남성의 춤 신청에 응해야 옳다. 특히 첫 곡과 마지막 곡은 동행자와 춤춰야 한다.

충돌 위험이 있으면 잠시 댄스 진행을 멈추거나 서로 팔에 신호를 보내 알려줘 충돌 코스를 피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춤출 때는 남성이 리더(leader), 여성 파트너는 팔로워(follower)이다. 여성이 리드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안된다. 춤추면서 여기저기를 훑어보거나 다른 커플을 슬금슬금 훑쳐보는 것은 물론 나쁜 매너다. 자기 파트너와의 춤에 집중해야 한다.

일단 플로어에 들어서면 다른 댄서들을 배려해야 한다. '등에도 눈이 달려 있다'는 듯이 조심하면서 진행하고 충돌하게 되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도 정중히 사과를 교환해야 한다.



매너 없는 춤 신청은 여성이 확실하게 거절해야 한다. 그러나 예의 바른 신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응해야 좋은 매너다.

AP=연합뉴스

출판이 끝나면 모두 상대 파트너를 칭찬하는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 생음악 연주라면 악단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매너가 바람직하다.

“댄스스포츠는 남녀가 함께 어울려 추는 커플댄스다. 춤추는 동안 다소의 스킨십이 불가피하다.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예절과 복장 등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또 댄스는 예술, 레저이고 운동, 취미 생활이며 여흥이고 문화다. 단순히 스텝과 피겨 동작의 루틴만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즐기는 것이다.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자기 절제와 남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호열 지음 '장호열의 댄스스포츠 스쿨' 2008, 김영사)

부부가 커플로 참석한 파티라도 배우자의 손만 잡고 춤을 취서는 안된다. 대화할 일이 있으면 집에서 하고 댄스파티에서는 당연히 여러 사람과 파트너를 서로 바꿔가며 춤추는 것이 매너에 맞다. 초청자가 있는 파티일 경우 여성은 남자주인(host), 남성은 여자주인(hostess)에게 춤을 청하는 것이 예의다.

특히 파티 현장에서 파트너의 수준에 맞춰 추는 매너가 중요하다. 춤 실력을 곧장 올릴 수 없으니 수준을 낮춰 추라는 얘기가. 처음 만나는 여성과는 단순하고 쉬운 피겨로 시작하고 조금씩 난도를 높인다. 파트너가 편안하게 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댄스 매너, 청소년 예절 교육에 활용하자”

하정석 댄스스포츠 전문강사는 “한마디로 댄스 매너를 축약

한다면 '배려'라고 할 수 있다"면서 "상대 파트너에 대한 배려는 물론 다른 커플, 댄스 교실, 파티 분위기를 고루 배려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댄스 교실의 선생과 학생, 춤 선수와 초보생, 남녀노스 간 댄스 매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이가 많다면, 춤을 더 잘 춘다면, 춤 강사라면 나이가 적고, 좀 못 추고, 배우는 초보생에게 모범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자치센터 댄스교실에서 젊은 강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특정 남녀 커플이 순차적인 '체인징 파트너' 관례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개인 교습하듯 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 매너에 어긋나고 전체 분위기를 망치는 이같은 사례는 서로 삼가야 한다. 댄스교실이나 댄스파티 등 출판에서 춤 실력이 물론 중요한 척도가 되지만 좋은 매너를 갖춘 인품의 향기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을 것이다.

댄스스포츠가 이렇게 예체능 요소 못지않게 매너와 배려라는 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최소한 중학 과정부터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성과 덕성, 체육 효과는 물론 예능과 감성 교육 효과도 지대할 것이다. 특히 어릴 때부터 남녀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매너를 댄스스포츠 교육을 통해 배양한다면 1석3조 효과를 거둘 것이다. 성인들의 생활체육 측면에서 정부 당국이 읍면동 단위 자치센터는 물론 시군구 주민문화센터 등의 댄스스포츠 교실 운영예산을 다소 지원하고 있다. 이를 청소년 대상 예체능 교육 예산 지원에도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댄스스포츠를 선택과목으로 도입한 각급 학교도 상당수 있다. 앞으로 점차 필수 과목으로 승격시켜 나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물론 정책 지도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